

타 경서 학습 문화 조성을 통해 이루는 종교평화와 종교지도자들의 역할

프라 시타왓차메티

왓 파 렐라이 왕립 사원 부주지, 태국

안녕하십니까, 길고 긴 코로나 기간을 지나 오프라인으로 재개된 9주년 918 평화 만국회의 종교지도자 컨퍼런스에 서 발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프라 시타왓차메티이고, 올해 7월 세계 종교평화아카데미에서 MCU의 행정 부총장인 프라 테파와라메티의 대리인 소승불교 강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HWPL의 새로운 플랫폼인 세계 종교평화 아카데미에 참석하여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평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서게 되어 큰 기쁨을 느낍니다.

태국 불교 대표 대학인 MCU에서도 세계 종교평화아카데미와 같이 타종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화합하기 위한 종교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00여 명의 참여자들이 모이는 이 플랫폼을 통해 종교 교류의 영역이 확장됐다는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5개의 각 종교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각 경서를 중심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한 자리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세계 종교평화아카데미는 마치 종교 박람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다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세계 종교평화아카데미를 통해 서로 다른 종교 및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며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저는 경서 학습을 통해 우리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결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로써 서로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근본적인 가치와 이해를 깊이 있게 교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계 종교평화아카데미에서 불교에 대해 2번에 걸쳐 강의를 하는 것은 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타 종교 지도자들이 불교에 대해 알아가려는 모습에 대해서 큰 감사함을 느끼는 한편, HWPL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IRPA 프로그램에서 태국 소승불교를 소개하는 첫 주자로서의 역할에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태국 소승 불교에 공감하고 연결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특히 불교의 복잡한 개념들을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IRPA에 참석하는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수년간의 종교연합사무실을 통해 서로의 경서에 대해 알아가며 오해를 해소하려는 모습, 그리고 IRPA를 통해 종교 간 학문적 교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들과 함께 태국 소승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7월에 세계 종교평화아카데미에 이어서 8월에 MCU에서 제공한 불교 후속 프로그램에서는 불교 강의를 통해서 강의 후에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IRPA 후속 불교 프로그램에서 만난 청중들은 밝고, 적극적이며, 불교 강의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질문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들이 질문과 의문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인류의 발전은 시공간을 초월한 지식의 공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세계 종교평화아카데미를 통해서 경서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의 공유는 서로의 종교 뿐 아니라, 문화와 이념, 삶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는 참된 우정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종교 문제를 뛰어넘는 종교 통합과 종교세계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IRPA와 같은 플랫폼의 확장을 위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 닫힌 마음을 열고, 종교적 지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 그릇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 그릇이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일 때 긍정적인 품성과 행동이 발현되며, 이는 현실의 고통을 해소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마음 그릇을 훈련시키고 깨끗하게 유지함으로써 인간은 지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하생이 있는 우리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단련시키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어서, 열린 마음으로 종교 화합을 이룰 종교 지식 학습과 종교 화합의 촉매제가 됩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 기관과의 학술적인 교류를 매개하여 많은 사람에게 세계 종교평화아카데미의 정신을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합시다.

세계 종교평화아카데미를 통해 얻은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모색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HWPL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상호작용하며 화합의 씨앗을 심어 나가고, 평화의 엔진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면서, 저는 종교 지도자로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